

제종교장 『화엄경』 章疏의 書名에 관한 연구

Titles of HuaYan Documents in *ZhuZongJiaoZang*

徐大源 (Suh, Dae-won)*

◁ 목 차 ▷

- | | |
|----------------------|---------------------|
| 1. 引 言 | 2.4 佛敎 文獻 성립에 대한 小考 |
| 2. 本 論의에 앞서 | 3. 敎藏에 보이는 華嚴書名 |
| 2.1 唐代 注釋史 略考 | 4. 書名 分析 |
| 2.2 唐代까지 불교 저술 略考 | 5. 結 言 |
| 2.3 佛敎 書籍 書名の 安定性 小考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논문에서 이미 발표한 교장에 보이는 천태문헌 서명의 고찰에 이어 교장에 보이는 화엄종 서명에 대한 시험적 고찰을 하였다.

단지 화엄종 서적은 본래가 방대하며 당송 시기에 저술되어 義天이 수록된 저서만 하여도 그 분량이 상당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敎藏總錄에 보이는 화엄3조의 저술의 서명만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杜順(557-640) 華嚴初祖, 智儼(602-668) 華嚴2祖, 法藏(643-712) 華嚴3祖이다.

당시의 저술 방식은 현재의 저술과는 달리 대부분 法師들은 강경 활동을 하였으며 그 강경한 내용들은 제자 등이 필록을 한 후 법사의 검토가 있거나 본인의 검토 후 문세(問世)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통 방식도 필사의 방식을 따랐다. 그 결과 書名の 불일치와 내용상의 출입이 발생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며 연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당대 시기 일반적인 주석 상황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주석 상황은 유가 경전의 주석 방식을 말한다. 그래서 당시의 불교 주석서는 '疏'가 보편적이었으며 화엄3조의 서명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이미 존재하였던 천태종과의 경쟁 상황이다. 천태종은 교리와 지관에 대해 매우 원만한 해석을 가지고 있다. 즉 이론과 종교 실천 방안을 잘 조합시키고 있다. 화엄학은 이론에 치우친 면이 있기에 역설적으로 지관 방법의 다양한 저술을 냈고 그것은 서명에도 반영되어 있다.

셋째, 신도들과의 상호간 호응관계 및 신도에 접근하기 편리하게 저술이 이루어졌으며 서명에서도 그런 면모가 보인다. 예를 들면, 문답류나 章 등과 같이 화엄 교리의 요약 등이다.

要語: 諸宗教藏, 華嚴3祖, 書名, 疏, 講經

* 충북대학교 창의융합교육본부 부교수(dayuans@hanmail.net)

■ 접수일: 2017년 3월 6일 ■ 최종심사일: 2017년 3월 15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itles in Tiantai-related literature and performed an experimental review on the titles in Huaen Sect. In fact, Huaen Sect-related books written during Tang and Song dynasties are huge. There already are a lot of books which cover YiTia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titles of HuaYan III, which are found in JiaoZangZongLu only. At that time, most Buddhist priests engaged in Buddhist jiangjing (lecture meeting), unlike current writing. The jiangjing-related contents were read by disciples and reviewed by the Buddhist priest. If not, they were often internally reviewed and published. They were also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transcription style. Hence, title mismatch and content in/out took place. Considering these findings, the study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First, the Tang period was under the influence of a general exegetical trend. Here, the general exegetical trend refers to the exegetical approach of Confucian scripture. At that time, therefore, 'Shu' was very common as a Buddhist commentary, so was the title of HuaYan III. Second, there was competition with the existing Tiantai Sect. Tiantai Sect has very broad interpretation approach on doctrine and zhi guan. In other words, it combines theory and religious implementation very well. Since the Tiantai Studies was somewhat theory-oriented, ironically, it released a wide variety of books on zhi guan, and they were reflected on the titles. Third, they were written in a manner which promotes approach and interaction with followers. This kind of intention is found in the titles as well, as the summary of the doctrines of Tiantai such as Q&As and lighting.

Key words: *ZhuZongJiaoZang*, HuaYan three great teachers, Title, Shu, Jiangjing(Lecture Meeting)

1. 引 言

팔자는 이미 “敎藏의 書名에 대한 試考 - 智者 大師 著述을 중심으로 -”라는 題名으로 교장의 서명 중 일부에 대한 고찰을 한 바가 있다.¹⁾ 팔자는 그에 이어 義天의 ‘諸宗敎藏’²⁾에 보이는 華嚴宗 系列의 書名을 고찰하고자 한다.

단지 華嚴宗은 唐나라 시기 성립하여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宗派이다. 거기에서 생산한 모든 책의 書名을 작은 논문에서 다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敎藏에 보이는 華嚴宗 系列 書籍은 唐代로부터 義天(1055-1101) 當時까지의 그 중에서도 수집 주장하고 있던 책들에 제한되지만 그럼에도 그 분량은 상당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唐代로부터 宋代에 이르기까지의 華嚴宗 저서들이 대부분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즉 唐代 華嚴宗 그 중에서도 華嚴3祖까지의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杜順(557-640) 華嚴初祖 - 智儼(602-668) 華嚴2祖 - 法藏(643-712) 華嚴3祖에 이르는 화엄종 초기 3대에 이루어진 저술들의 書名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세 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몇 가지를 먼저 서술해야 할 것이다. 우선 모두 唐代 僧侶들이다. 즉 唐나라라는 배경으로 활동을 하였던 인물들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우선 唐나라라고 하는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활동의 장소로 삼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唐代 불교라고 하는 중국 불교사에서 輝煌한 시기에 국가의 지원과 함께 발전한 시기라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天台宗 이후에 발생한 종파라는 점이다. 이 점은 많은 특정 宗派史 연구자들 - 예를 들면 화엄종사 혹은 선종사 -이 간과하는 부분이지만 사실상 간과하면 되지 않는 부분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중국의 불교문헌 번역사라는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중국 종파 성립이란 의미에서 보자면 최초의 중국의 불교종파를 꼽자면 당연히 天台宗을 꼽아야 한다. 그 이전은 일반적으로 學派佛敎의 시대라고 분류되며 대부분 한 가지 경전 혹은 論書에 집중하여 불교의 가르침을 부연하고 따르는 것이었다.

1) 徐大源, “敎藏의 書名에 대한 試考 - 智者 大師 著述을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제67집(2016. 9), 209-230.
2)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敎藏’을 의전 ‘諸宗敎藏’의 약칭으로도 사용하겠다. 일반적으로도 ‘敎藏’을 의전 ‘諸宗敎藏’의 약칭으로도 사용한다.

天台宗에 이르러 물론 일부 소의경전을 가지고는 있지만 전체 불교를 나름의 입장으로 체계화시키고 소화하여 하나의 형식을 건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후대에서도 教觀 두 방면에 있어 매우 完美的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 일부의 연구자들은 후대의 중국 종파 중 어느 종파도 教觀에 대한 會通은 천태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학설 혹은 경지의 우열이 아니라, 당대 불교가 처해 있던 상황이다. 물론 儒家나 道家와 같은 非佛敎적인 外學들과의 경쟁도 중요하였겠지만 佛敎 내부로 보면 天台宗과의 경쟁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천태종이 극복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종파로서 성립이 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태 이후의 중국 종파들은 특히 華嚴宗은 天台宗을 흡수하는 면과 극복하는 면이 보인다. 이 두 현상은 비단 서명 등 形式 뿐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教藏에 보이는 화엄종 초기 書名을 통해 몇 가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첫째, 당시 시대조류와 서명의 관계이다.

둘째, 당시 천태종 등과의 경쟁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셋째, 불교의 발전 및 전문화와 서명과의 관계이다.

물론 이런 연구는 일반적으로 별로 진행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제의 크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어떤 한 연구자가 다루기에는 주제가 다소 큰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종파 혹은 어느 한 문헌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런 연구는 선행 연구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³⁾ 그러므로 본고는 '試論'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한계를 인정하며 본고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본 논의에 앞서

필자는 앞의 논문 "教藏의 書名에 대한 試考 - 智者 大師 著述를 중심으로 -"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3) 물론 필자의 寡聞 탓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작품에 대한 해설은 여기저기 보인다. 단지 시대와 서명 등의 주제로 된 연구에 대해서 필자는 아직 본 적이 없다.

한 시대 불교의 문헌명에서도 불교의 교리와 동아시아 전통의 흐름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보여준다. ... 동아시아 불교는 항상 동아시아와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⁴⁾

그렇다면 서명을 고찰하기에 앞서 시대상황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1 唐代 注釋史 略考

우선 당대 학술사는 크게 보자면, 隋代의 연장성상 혹은 수대 학술 상황의 발전이라 볼 수 있다. 남북조의 시기로부터 수대를 보자면 북조가 남조를 併呑하여 隋 나라를 연다. 그러나 문화 학술사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기묘한 현상이 발생한다.

즉 隋代의 상황을 보면 정치와는 반대로 남조의 문화와 학술이 북조를 併呑하여 남조적인 문화와 학술이 주류를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⁵⁾ 큰 흐름을 보면 이런 현상은 唐宋 이후까지 이어진다. 그렇다면 이 흐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義理'이다. 즉 경전의 '義理'를 闡明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漢代와 清代에 名物訓詁가 학계를 지배했던 것을 보면 분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이것은 당대의 대표적인 작품인 五經正義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正義'라는 어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正義'는 '올바른 혹은 정당한 義理'란 의미이다. 기존의 여러 해석 중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혹은 이전에 올바른 의리를 밝혀내지 못하면 새롭게 闡發하면서 '正義'를 확립한 것이다. 여기에서 보자면 '義理'가 중심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즉 그 '目的'이다. 물론 학술적 문화적인 목적이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과거 등을 대비한 '교과서'의 확립이다.

다시 말하면 '五經正義'는 국가에서 정한 '五經'의 정확한 혹은 정당한 의리이다.

그렇다면 이 의리로 '五經'을 해석할 적에 순조롭지 않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참고서의 역할은 그 '不順'한 부분을 '順'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 '不通'하는 부분을 '通'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을 '疏'라 한다. 사실상 소의 출발은 의리상 '不通'한 부분을 '通'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正義'⁶⁾에 대해서 혹은 경전에 대해 많은 '疏'가 발생한다. 이것의 대표작을 꼽으라면 당대로부터 송대에까지 이루어진 十三經注疏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리를 중심으로 경전의 대의를 밝히는 책도 등장하게 된다.⁷⁾ 이것도 크게 보면 義理와

4) 徐大源(2016), 229.

5) 皮錫瑞, 『경학역사』(中華書局, 2004) 참조.

6) 사실상 '正義'도 疏이다.

疏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당대 학술은 義理를 강조하였고, 그 결과 '疏'가 경전 해석의 대표적인 형식 혹은 이름이 되었고, 곧바로 義理를 밝히는 저서들이 나왔다는 것이다.

2.2 唐代까지 불교 저술 略考

누구나 알 듯이 중국에 있어 佛敎는 外來 思想이자 文化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조에서부터 隋唐 시기에 이르기까지 主流를 점하였다라고 주장되기도 한다.⁸⁾ 필자는 조심스럽게 이 관점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征服' '主流'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중국 더 나가 동아시아에 있어 불교의 영향력은 '巨大'하다고 평가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 이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만일 완전히 '征服'하고 '主流'가 되었다면 불교가 중국의 학술과 문화의 宗主가 되고 기타 문화가 從屬的으로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여기에서는 단지 불교 저술의 방식에 대해서만 다루자면 佛敎 문헌의 대부분은 中國 文獻과 기본적으로 차별화되지 않는다. 인도 혹은 서역의 전통과는 상당부분 이별하고 중국의 전통과 인연을 맺고 있다.

이런 특징은 僧肇로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僧肇는 최초로 불경을 중국 형식의 주석을 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불교 문헌 특히 주석에는 두 개의 전통이 형성된다. 즉 文疏와 義疏가 그것이다. 하나는 글에 대한 해석을 위주로 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義理를 위주로 해설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걸 본질적으로 불교 경전의 설명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중국적인 방식이다. 왜냐하면 보다 중국 전통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訓詁와 義理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唐代는 기본적으로 義理를 중시한다. 이 점은 불교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즉 隋代 이전 文·義라는 두 개의 전통은 통일국가인 隋가 성립되며 통일되었고⁹⁾ 의리 천발이라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¹⁰⁾

이 이외 불교 내적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불교에는 본래 敎觀 혹은 定慧라는 두 개의

7) 당송팔대가의 여러 글들이 그런 방식이며, 특히 예와 관련된 전문적인 저서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8) 서양에서 Erik Zürcher의 박사논문으로 발간된 책을 중국의 李四龍이 증역하여 2003년 『佛敎征服中國』을 강소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이 관점은 서양과 동양 모두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9) 徐大源, "敎藏의 書名에 대한 試考 - 智者大師 著述을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제67집(2016. 9) 참조.

10)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智者대사의 작품과 화엄 선 등과 비교해 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전통이 있다. 이것을 거칠게 말하면 ‘禪定’과 ‘敎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북조는 ‘定’을 중시했고 남조는 ‘慧’를 강조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도 隋唐을 통해 통일되는 면모를 보인다.¹¹⁾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말하였듯이 天台宗에서 원용적으로 해석하였다고 평가받는다.

마찬가지로 당대에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새로운 종파에 성립된다는 것은 敎觀을 다른 방식으로 圓滿하게 해석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¹²⁾

즉 당시까지의 불교 흐름상 ‘義理의 闡發’과 ‘敎觀의 融合’은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2.3 佛敎 書籍 書名의 安定性 小考

본 주제를 연구하면서 항상 고민이 되던 사항이다. 즉 불교서명의 安定性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安定性은 流動性의 반의어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書名이 얼마나 굳건한지에 관한 의문이다. 왜냐하면 불교문헌 서명의 安定性이 클수록 본 연구의 가치가 높을 것이며 流動性이 커질수록 본 연구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불교 문헌의 서명이 무한정 流動的이지는 않다. 상당히 安定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느낌으로는 문헌명의 안정성은 유교 > 불교 > 도교인 듯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크게 보자면 官과 긴밀할수록 安定性이 높고 民間에 가까울수록 流動性이 커지는 듯하다.

우선 科擧의 대상이라면 그것은 상당한 安定性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수험과 고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더 나가 국가의 이념이나 강령 등에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교문헌 특히 隋唐을 포함한 전통시기의 佛書名은 어느 정도의 탄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본 논문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彈性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단지 그 탄성이 매우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본고의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¹³⁾

11) 물론 후일 다시 분리되는 모양이 보인다. 여기에서는 華嚴宗까지에 대한 평가이다.

12) 순수한 실천불교라면 이 문제가 절실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불교 전반을 이야기한다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연구자들은 禪宗과 淨土宗을 실천불교의 범위에 넣기도 한다.

13) 그렇다면 왜 탄성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은 뒤에 언급이 될 것이다.

2.4 佛敎 文獻 성립에 대한 小考

그렇다면 불교 문헌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성립하였을까? 물론 하나의 문헌에는 하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唐시기 혹은 唐代까지의 불교 문헌이 성립되는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 보겠다.

우리가 현재 저서를 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목과 목차를 정한 뒤 자료와 함께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한다. 작업을 하며 본래의 계획을 수정하기도 하지만 수정하자마자 컴퓨터가 알아서 목차 등을 수정해 준다. 그리고 그 원고를 출판사에 내면 출판사에서 검토하고 상호간 수정 등을 거쳐 출판하게 된다. 설마 당시 문헌 성립이 지금과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만 붓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저서를 낸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어떤 경우는 그러하지만 불교의 경우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 특히 唐代까지는 더욱 그러하다.

譯經에서부터 고찰해보면, 구마라습은 역경을 하면서 강의를 하였다. 이 부분은 僧肇의 『注維摩經』의 서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의 高僧大德이란 일반적으로 法師 즉 說法僧들이다. 왜냐하면 불경을 번역만 한다고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文章이 번역문 투로 중국의 본래 글과 다르다. 즉 대중들에게 생소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단어들 즉 名相들이 많이 등장하며 音譯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비중 있는 경전이나 논서들은 그 의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¹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講說經論’ 이외에는 없었다. 특히 불교가 세를 확장하고 새로운 신도를 만드는데 이해도 되지 않는 책을 억지로 읽으라고 강요하며 던져 주었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시 大德의 일생을 보면 대부분 ‘講說’¹⁵⁾을 하였다. 특히 천태종 같은 경우 일생에 걸쳐 수십 번 『法華經』을 강설하고 화엄종 같은 경우 일생에 걸쳐 수십 번 『華嚴經』을 강설한다. 그분들의 일생을 살펴보면, 강설과 포교 업무를 빼고 著述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현재의 입장으로

14) 古來로 불서를 읽는데 세 가지 난관이 있다고 한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① 古文關 ② 名相關 ③ 覺悟關 즉 이 세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불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古文關은 고문으로 불경과 불서가 번역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우 독특한 불교의 문투를 포함하는 것이다. 名相關은 불교술어 즉 불교의 전문용어를 장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佛書는 名相의 바다라고도 한다. 覺悟關은 본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니 의리에 대한 체득을 말할 것이다. 이것은 불교가 전래된 이래 지금까지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 물론 일부는 번역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역승은 언제나 소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승들도 끊임없이 강설을 하였다.

보면,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며 그 많은 저술을 하였을까?

사실상 많은 저술들은 지금처럼 저자가 직접 쓴 것들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A라고 하는 분이 『abc』라는 책을 강의하면 제자나 신중이 그것을 筆受 즉 筆記를 한다. 그리고 그 필기본을 다시 정리하여 A의 검수와 수정 및 정리를 거쳐 책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A의 검수나 정리 없이 A의 사후 혹은 A와 이별한 뒤에 나오기도 한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첫째, 저자의 문제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위작 등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은 스승의 이름으로 책이 나온다. 둘째, A의 검수 등이 없이 나올 경우 강론자와 필수자의 선택과 분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서명의 확정에 대한 문제이다. 즉 서명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이다.

더욱이 당시에는 筆寫를 통해 서적이 유통될 시기이다. 이럴 경우 내용의 詳略 및 서명의 변화 등이 발생한다. 즉 全名과 略名의 차이 등이다.

이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書名이 탄력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특히 A가 서명을 定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탄성은 보다 심하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대 많은 저술이 '筆記'한 것이나 '베껴 쓴'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강의한 내용을 필기나 베꼈다면 책으로 낼 때에는 '정리'를 하였을 것이다. 즉 많은 비유나 부연 설명 등이 빠지고 보다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당시에는 법사가 직접 저술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지만 앞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3. 敎藏에 보이는 華嚴書名

그러 이제 華嚴 1祖로부터 華嚴3祖까지의 저서 중 敎藏에 나오는 것을 알아보자.

3.1 杜順

杜順(557-640)은 唐代 승려로서 華嚴宗 初祖로 불린다. 18세 출가하여 법호는 法順이다. 화엄학을 선양하였으며 제자 중에 智儼이 명성을 떨쳤다. 그의 저서는 그리 많지 않다.

번호	교장명(고산사본)	기타 명칭	비고
1	法界觀(1권)	華嚴法界觀門	“法順述”로 되어 있으며 “俗姓杜氏, 世稱杜順”이라 표기되어 있다.
2	十門實相觀(1권)	十門實相觀	“杜順述”로 되어 있으며, “視”는 “觀”의 오키인 듯하다.

현재 고산사본에는 이 두 가지만 보인다. 약간 이상한 것은 일반적으로 서명을 시대순으로 배열하였는데 杜順의 작품은 그렇지가 않다. 물론 반드시 시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중시도의 차이인지 모르겠다.

두순의 작품은 위의 두 가지 이외에 『華嚴五教止觀』, 『會諸宗別見頌』 등이 있다.

3.2 智儼

智儼(602-668)은 唐代 승려이다. 華嚴宗 第2祖이다. 至相大師라고도 불린다. 杜順을 師事하였으며 法藏의 스승이다. 저술은 다음과 같다.

번호	교장명(고산사본)	기타 명칭	비고
1	搜玄記(5권)	大方廣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	
2	因明論鈔(8권)		
3	要義問答(2권)	華嚴五十要問答	“世五十要問答是”라 설명
4	十玄章(1권)	華嚴一乘十玄門	? 부기
5	六相章		“三性章附”
6	(大乘起信論)義記(1권)		
7	(大乘起信論)疏(1권)		
8	無性攝論疏(4권)		

필자가 보기에 『因明論鈔』는 지엄의 저술이 확실한지 다시 고찰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3.3 法藏

法藏(643-712)은 華嚴宗 第3祖로서 실제적으로 화엄종 개창자로 평가받는다. 法藏은 자가 賢首이다. 그래서 華嚴宗을 賢首宗이라고도 부르고 법장을 ‘華嚴宗主’라고도 부른다. 법장은 본래 저술이 매우 풍부하기도 하지만 義天도 그의 저술을 수집하는데 치력하였던 듯하다. 教藏에 그의 저술이 상당히 풍부하게 보인다.

번호	교장명(고산사본)	기타 명칭	비고
1	探玄記(20권)	花嚴經探玄記	
2	(華嚴經)略疏	華嚴料簡(?)	
3	三昧觀(1권)		
4	普賢觀(1권)		
5	色空觀(1권)		
6	華嚴世界海觀(1권)		
7	法界義(?)海(?)권)		
8	綱目章(1권)		
9	指歸章(1권)		
10	策(?)林(1권)		
11	華嚴雜章門(1권)		
12	三寶別行記(1권)		
13	金師子章(1권)		
14	佛名(2권)		
15	梵語(1권)		
16	傳記(5권)		
17	(般若心經)疏(1권)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18	音義(1권)		
19	寄海東華嚴大德書(1권)		“賢首”라 되어 있음.
20	(無常經)疏(1권)		
21	(梵網經)疏(3권)		
22	(大乘起信論)?記(1권)	大乘起信論疏	
23	法界無差別論疏(1권)		
24	十二門論疏(1권)		
25	還源觀(1권)	修華嚴奧旨安盡還源觀 혹은 安盡還源觀	

위의 저서 중에는 현재 法藏의 저술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작품도 있으며 현재 작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만일 위의 教藏總錄이 義天의 글을 그대로 筆寫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살펴보면 의천은 書名을 나름대로 고심하고 정하였다는 것이다. 智儼의 ‘要義問答’에 대해서는 당시 세속에서는 ‘五十要問答’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어느 부분에서는 글자가 분명하게 판독이 되질 않으나 “일부 내용은 어떤 부분은 후인의 기술한 것으로 의심된다.”¹⁶⁾ 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런 점으로 보아 義天은 나름의 안목으로 판단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위 비고의 ‘?’ 부분

4. 書名 分析

위에서 화엄 3조에 걸친 著書名을 보았다. 우선 몇 가지 특징을 꼽을 수 있다. 첫째, '疏'라는 명칭이 매우 많다는 점이다. 둘째,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으나 '玄'은 매우 중요하다. 후술하겠다. 셋째, '觀'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등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4.1 疏類

이미 앞에서 말하였듯이 '疏'가 매우 많이 등장한다. 사실상 이것은 화엄 3조 저술의 특징이라기 보다는 위진남북조 후기로부터 당송시기에 이르는 상당 기간의 유행이라 말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즉 당시의 일반적인 표현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敎藏總錄을 보면 '疏'가 매우 많다. 이미 隋唐代에는 注와 疏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리고 불교사에서 보면 초기에는 注 그리고 중기에는 疏 그리고 疏라는 명칭이 상대적으로 생소해지는 후대에는 다시 注를 많이 사용한다. 단지 隋唐 時期 불교 문헌이 워낙 많이 생산되다 보니 불교도에게든 疏가 보다 친숙할 뿐이다.

'疏'의 본래적인 의미는 '不通' 혹은 '難通'을 '通'하게 해 준다는 의미이다. 즉 어려운 부분을 해설하는 것이다. 즉 의리설명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단지 수당 시기에 오면 '해설' '주석'을 대부분 '疏'라 부른다. 즉 지금의 '해설'에 가장 가까운 표현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疏와 略疏의 관계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疏와 略疏를 말한다면 詳疏와 略疏의 차이일 것이다. 구지 번역하자면 자세한 해설과 간략한 해설의 차이이다. 사실상 그런 예가 있다. 먼저 '疏'를 내고 다시 '略疏'를 내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 앞의 것은 '詳疏'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疏'만을 내고 '略疏'라 명명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상 '疏'와 별반 차이가 없다. 단지 심리상의 '차이'일 뿐이다.

여기에서 '심리상의 차이'라는 말은 마음 갖음이 - 사실이 그러한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 간략한 '疏'를 내겠다거나 혹은 무한한 불교의 진리를 어찌 詳盡하게 해설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겸손의 의미일 것이다.

이런 경우 '의견'은 그냥 '疏'로 보았던 듯하다. 왜냐하면 法藏의 저술을 논함에 반야심경에 대해

‘疏一卷’이라 표시하고 아무런 설명도 없다. 그런데 세상에 전하는 판본에는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저술의 끝 부분을 보면 “略釋絕筆, 述懷頌曰: …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略釋’은 이미 ‘略疏’의 의미이며 더욱이 끝에 스스로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 글의 서명은 마땅히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義天이 ‘疏一卷’이란 한 것은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즉 疏와 略疏의 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차이일 수도 있다.

둘째, 疏와 記 등과의 관계

위의 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疏記’ 등의 서명이 보인다. 어떤 경우 동일한 책이 ‘…疏’, ‘…疏記’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유사한 예를 들자면 『法華文句』는 『法華文句記』라고도 불린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智者가 강의한 것 - 즉 法華文句 -을 제자가 記錄하였기 때문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단순한 ‘記錄’이 아니라 記錄 整理를 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唐代 불교 문헌이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 많은 경우, 법사의 강의 - 疏 -를 기록하였다가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말하자면 ‘疏記’라고 해야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스승이 강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疏’라는 방식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사실상 어떤 경우는 ‘疏’와 ‘記’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義記’와 ‘義疏’도 거의 차이가 없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鈔’에 대해 살펴보자. ‘鈔’는 사실상 ‘抄’의 통자이다. 즉 동일한 의미이다. 抄錄하다라는 의미이다. 의미상 記錄과 거의 차이가 없다. ‘記’가 좀 더 고전적인 표현이라면 ‘鈔’(혹은 ‘抄’)는 상대적으로 구어적인 느낌이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抄錄’한 것을 ‘鈔’(혹은 ‘抄’)라 한다. 단지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다. ‘…疏鈔’라 할 경우 다음 네 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① ‘…疏’ 자체를 지칭할 수도 있다. ‘…疏記’와 마찬가지로이다. ② ‘…疏’를 그대로 필사한 것. 오탈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필사한 것이다. ③ ‘…疏’를 抄略한 것이다. 즉 압축하여 필사한 것이다. ④ ‘…疏’를 누군가 강의하면서 한 이야기를 ‘鈔’하였다가 부가하는 경우이다. 즉 ‘疏’+‘鈔’의 경우이다. 이 중 구체적인 문헌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한다. 단지 어떤 경우라도 ‘鈔’(혹은 ‘抄’)는 抄錄 혹은 抄略의 의미를 갖는다.

4.2 玄類

위의 書名에서 ‘玄’은 그리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다. 단지 약간의 설명을 가하면 상황이 달라질

17) 鈔와 抄는 시기에 따라 유행하자는 자형이 다를 뿐이다. 교장에는 鈔만 보인다.

것이다. 『搜玄記』는 智儼의 대표작일 뿐 아니라 화엄조 제2조가 되게 하는 작품이며, 『探玄記』는 法藏이 법장일 수 있게 하는 작품일 뿐 아니라 화엄종을 賢首宗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 중요한 하나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搜玄記』와 『探玄記』는 제목만 보아도 계승 발전 발휘라는 측면이 느껴진다.

즉 華嚴의 대표작에는 ‘玄’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玄’이란 본래 道家의 용어이다. 『老子』 “玄之又玄”에서 근원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심오한 의미를 가진 책을 ‘玄’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老子』, 『莊子』, 『周易』을 三玄이라고도 불렀다. 세 가지 심오한 내용을 가진 책이란 의미이다.

그 이후 ‘玄’이란 ‘심오한 내용’ 혹은 ‘심오한 철리’란 의미도 가지게 되었고 ‘眞理’란 의미로도 사용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을 ‘玄學’이라고도 불렀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뿌리는 내리는 시기는 바로 이 ‘玄學’의 시기였다. 물론 어려운 불교를 일반사람들은 현학의 일부 혹은 ‘현학적’이라고 느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현학적인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어감이 아니라 ‘심오한 진리’와 유사한 의미이다.

그 이후 ‘玄’이란 용어는 佛敎와 道敎에서 모두 즐겨 사용하며 자기의 학문이 진정한 ‘玄學’이라고 여겼다. 唐代는 도교도 ‘重玄學’이 유행하였다.

불교에서도 의리적인 부분 특히 심오한 의미 더 나가 진리와 유사한 의미로까지 ‘玄’을 사용한다. 위의 서명에서 보이는 ‘玄’은 바로 그런 의미이다.

그런데 智者的 저자와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보인다. 지자는 ‘의리’ 부분에 ‘玄’을 사용하는 듯하다. 즉 소의경전인 『法華經』 이외에도 ‘玄’을 사용한다. 즉 좀 더 넓게 사용한다.

그런데 화엄 저술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搜玄記』(즉 『華嚴經搜玄記』), 『十玄章』(즉 『華嚴一乘十玄門』), 『探玄記』(즉 『花嚴經探玄記』)

즉 華嚴學에 대해서만 주로 ‘玄’을 사용하고 있다. ‘진리’에 대해 ‘非華嚴莫敢當’이란 의미를 은연 중 보여주는 듯하다.

즉 ‘眞理’는 般若學에 있는 것도 아니고 唯識學에 있는 것도 아니고 天台에 있는 것이 아니라 華嚴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하다.

그래서 서명도 “玄을 찾아간 기록” 혹은 “玄을 탐구한 기록”이라 한 것이고 또 “화엄의 유일한 길에 있는 열 가지 심오함에 대한 글”이다.

즉 ‘玄’은 화엄학의 종통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4.3 觀類

또 한 가지 비교적 쉽게 발견되는 특징은 ‘觀’字類 書名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法界觀』 『十門實相觀』 『三昧觀』 『普賢觀』 『色空觀』 『還源觀』

이 중 『還源觀』에 대해 살펴보자. 이 책은 『修華嚴奧旨妄盡還源觀』 혹은 『妄盡還源觀』이라고도 부른다. “修華嚴奧旨妄盡還源觀”을 번역하면 “華嚴의 심오한 의리를 수행하여 妄心이 다 사라져 근원으로 돌아가는 지관 방법”쯤 될 것이다.

중국 근대의 저명한 불교학자 楊仁山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적이 있다.

안으로 6개 부문으로 나누어지니 첫째 體, 둘째 用, 셋째 遍, 넷째 德, 다섯째 止, 여섯째 觀이다. 천태종 사람들은 화엄종에는 教만 있지 觀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 이 책을 보았겠는가?¹⁸⁾

아직까지도 화엄에 대해 적지 않은 학자들이 ‘有教無觀’이란 평가를 한다. 단지 화엄종은 - 최소한 필자가 보기에 - 止觀에 매우 신경을 썼다. 그것은 이미 설명하였듯이 당시 華嚴이 天台와 경쟁하고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教觀 전반에 걸친 대안을 내 놓아야 하였기 때문이다.

‘玄’字書名이 教를 대표한다면 ‘觀’자서명은 觀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찌면 역설적으로 天台의 지관을 극복하기 어려웠기에 觀字類 서적이 적지 않은 것이다.

4.4 其他

이와 같이 특징적인 것 이외에도 여러 서명들이 보인다. 그 중 일부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

① ‘章’字類書名

이 서명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보자.

『十玄章』 『六相章』 『綱目章』 『指歸章』 『金師子章』

이 책들은 대개 1권이다. 이 중 天台三要 중 하나라는 『金師子章』을 예로 들어보자. 범장은

18) 陳永革, 『法藏評傳』 (남경대학출판사, 2006) 37쪽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다.

당시 실권자인 측천무후를 화엄학에 대해 단박(?)에 開悟하게 하기 위해 화엄학을 1권으로 비유와 함께 압축하여 한 권의 책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金師子章』이다. 전설에 의하면 법장의 『金師子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측천무후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처럼 짧게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글을 ‘章’이라 한다. 결국 ‘길지 않은 글’이란 의미이다.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보자면, ‘章’과 ‘章門’의 구별이다. 위의 표를 보면 알겠지만 두 명칭은 혼용되기도 한다. 그 내용의 길이를 중심으로 보면 ‘章’이고 발표되는 방식이 ‘法門’ 혹은 그 자체가 ‘法門’이기에 혹은 並列로 사용되고 혹은 혼용되고 혹은 치환되는 것이다.

당시 짧은 글 혹은 설법으로 사람들을 화엄학에 인도할 필요성이 많았을 것이다.¹⁹⁾ 그래서 이런 글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② 問答

위의 글에 보면 問答으로 된 서명이 보인다. 『要義問答』(현재 일반적인 명칭 『華嚴五十要問答』)이 이것이다.

번역을 하자면 “중요한 의미에 대한 문답”(화엄에 대한 50가지 중요한 문답)이다. 이것은 필자가 앞에서 설명한 ‘說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상 儒學의 서적과 비교하면 佛敎에는 問答이 많다. 이것은 찬술 방식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유학은 글자 그대로의 찬술이 많기 때문에 問答이 많을 수 없다. 그러나 불교는 講說의 기반 위에 撰述되기에 問答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문답을 다 저술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화엄학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문답을 저서화한 것이다.

이 이외에 어떤 경우 서명에 ‘宗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핵심의리’란 의미이다. ‘宗致記’라 하면 “중심 요지에 대한 기록”이다.

끝으로 賢首란 이름에 “寄海東華嚴大德書”라는 것이 보인다. 여기에서 賢首는 아마 法藏을 지칭할 것이다. “寄海東華嚴大德書”는 “한반도에 있는 화엄학 고승에게 보낸 편지”이다. 자못 그 내용이 궁금해진다. 단지 자료의 한계로 그에 대한 고찰을 할 수는 없었다.

19) 화엄학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짧은 글로 신도들에게 다가갈 종교적 필요성을 강화하였을 것이다.

5. 結 言

사상은 시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시대가 토양이라면 사상은 거기에서 생산된 열매 중 일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깨끗한 사과를 보고 흠도 먼지도 없는 진공의 우주에서 만들어졌다고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것을 분석하여 환경 더 나가 성장배경 등에 대해 분석해 낸다.

필자가 보기에 書名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필자 능력의 한계와 書名이 가지는 彈性 등의 이유로 정치하고 확고하게 분석하여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화엄3조 조서의 서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① 의리의 闡發

이것은 '疏'자류 서명이 많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서명뿐 아니라 내용을 고찰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이 특징은 화엄 저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수당시기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② 천태학과의 경쟁관계

천태학의 장점인 定慧圓融을 화엄적인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즉 화엄적인 지관을 건립하여 알리고자 하였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觀'字類 서명이 발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 화엄학에 입각한 선법의 건립이다.

③ 宗統 확립

종통이란 일종의 진리체계의 전수를 말한다. 화엄학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玄'을 사용하였으며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저서는 '玄'字類 서명이 많다.

④ 簡要한 방법의 傳道

화엄학은 본래 매우 어렵고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특징은 일부학승의 연구나 흥미에 부합할 수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 접근하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을 접근하기 위해 화엄학을 쉽고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의도는 주로 '章'字類 서명에 보인다.

⑤ 강의 정리

화엄학을 강설하며 이루어졌던 문답 중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여 책을 내기도 하였다. 問答類가

대표적이다. 이런 형식은 유학 등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화엄학의 탄생 배경 및 상황 그리고 의도를 바탕으로 화엄서명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고찰한 교장에 보이는 화엄3조의 저술명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참고문헌>

- 星雲大師, 『佛光大辭典』, 高雄: 佛光出版社, 1988.
張寶三, 『五經正義研究』,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0.
丁福保, 『佛學大辭典』, 上海: 上海書局, 1990.
齊佩瑢, 『訓詁學概論』, 臺北: 華正書局, 民國78.
陳永革, 『法藏評傳』,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6.
皮錫瑞, 『經學歷史』, 北京: 中華書局, 2004.